

News

기업대출 증가세 이끈 개인사업자대출...부실위험 '경고등'

뉴스1

5대 은행 기업대출 잔액,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세 견인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맞물려 우리 경제 뇌관 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5대 은행 총 653억 9,072억원으로 전월비 5조 2,052억원 증가...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월비 2조 362억원 증가... 금융지원 일괄 종료시 적자가구 금융부채 최대 235조원

4대 은행 금리 리스크 1년 만에 1조 늘었다

데일리안

국내 4대 시중은행, 잠재된 금리 리스크 최근 1년 동안 1조 1,764억원 증가하며 총 3조 6,406억원... 하나은행 금리 EVE가 1조 89억원으로 최대 기록
금리 인상은 은행 경영에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향후 대출 부실 우려도 존재...한은 추산에 따르면 금리 0.25%p 상승시 전체 가계 연간 이자 부담 규모 3조 2,000억원 증가

시중은행의 자존심... 막 오른 서울시금고 갱탈전

조선비즈

서울시금고 지정 제안서 신청,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 5월 중 서울시 금고 업무 취급 약정 맺을 예정... 1금고 신한은행, 2금고 우리은행 약정은 올해 만료
서울시금고는 한 해 운용규모가 1,2금고 합쳐 47조 7,000억원 규모... 고객 유지 및 브랜드 홍보 효과와 함께 예산 관리를 통한 수수료 이익도 향유 가능

카카오뱅크, 토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흥행에 '반색'...총당금 부담은 '고민'

시사저널이코노미

카카오뱅크, 토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흥행 성공에 동사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청신호... 올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출시할 계획
작년 하반기부터 고신용자 대출 중단한 상황... 전체 대출 잔액 3.3% 증가로 대출 증가세 꺾인 모습... 다만 대손충당금 증가는 부담으로 작용 우려... CSS 정교화가 관련

마이데이터 시대... KB손보 앱 켜놓고 '푸르덴셜 보험금' 청구한다

머니S

KB손보, 4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 본격 시작... 올 하반기에 KB금융지주 보험계열사에 대해 한 회사에만 접수해도 통합적으로 보험청구되는 서비스 오픈 예정
현재는 금융자산 서비스만 확인 가능하나 향후 KB금융 계열사와 연계한 자동차, 부동산 자산 조회서비스 추가될 예정

"유병자도 가입" 불붙은 치아보험 경쟁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 올해 치아보험 보장 확대하는 동시에 유병자로 고객 범위 확대...국내 보험사간 치아보험시장 둘러싼 경쟁 가열되는 분위기
현대해상, 동양생명,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등이 조건 향상시킨 보험 출시하거나 보험 가입 대상 확대하면서 치열한 시장경쟁에 나서...

증권사 자기자본 사상 최대...IB 경쟁 대비 '잔결음'

아시아투데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법인 47곳의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합계는 74조 6,172억원... 5년 전 대비 65.1% 증가
가장 큰 곳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가장 빠르게 몸집 늘린 곳... 최근 RCPS 발행으로 자기자본 3조원 달성... KTB, 하이투자증권도 자본 확충

삼성·한화·키움증권, 5월 해외주식 무료 신고대행 '분주'

데일리안

증권사들,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시즌 맞아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 나서... 삼성증권 포함 전 증권사에서 작년보다 약 100일 앞당겨 시작
키움증권, 오늘 13일까지 실시.. 한화투자증권,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미국 주식 보관 투자 금액 작년 말 677억 8,000만 달러로 13.5배 증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